

##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

장 정 임 · 이 연 희<sup>+</sup>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의교수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Parody Expressed in Thom Browne's Collection

Jung Im Jang · Youn Hee Lee<sup>+</sup>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2. 6. 25, 심사(수정)일: 2012. 9. 26, 게재 확정일: 2012. 9. 30)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arody, and consider how parody was reflected in *Thom Browne's* collection centering on the expressive method. Thus, this study will attempt to shed new light on the creative possibility and artistic value of parody in men's fashion design. The methods are as follows. The ideas,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methods that represent parody was considered by referencing various related books, papers, art critiques, etc. Based on this theoretical study, a case of *Thom Browne's* collection (*Thom Browne* menswear: 2004 S/S-2012 F/W) was observed to find types of parody, attributes and significance. Photo material was collected through websites such as [www.thombrowne.com](http://www.thombrowne.com), [www.style.com](http://www.style.com), etc.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parody expressed in *Thom Browne's* collection was considered in the following aspects: imitative parody, critical parody and pastiche parody. Through such consideration, it was possible to realize the fashion designs that adapt *Thom Browne's* parody are very deliberate and calculative. The designs convey exaggeration, destruction of form, emphasis on discontinuity, transition into attraction, aesthetics of unfamiliarity, characteristic aspects of irrationality and contradiction. Through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see *Thom Browne's* collection with parody adaptation shaping new creativity and broadening formative aspects in fashion design.

Key words: critical parody(비판적 패러디), imitative parody(모방적 패러디),  
pastiche parody(혼성모방적 패러디), Thom Browne(톰 브라운)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사회비평가 드와이트 맥도널드(Dwight Macdonald)가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탐구자들이며 페러디는 우리 시대의 중심이 되는 표현방법이다.”<sup>1)</sup>라고 언급하였듯이 현대 예술의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낭만주의 예술이 갖는 독창성과 창조성에 대한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이후 페러디 예술의 부상과 함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예술의 페러다임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예술을 독창성의 작업으로 인식해온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남의 작품에 대한 모방성이나 반복성을 창작의 대비개념으로 간주하여 예술가의 열등성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극단적 인식은 모방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조차 평가 절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예술의 죽음, 더 나아가 작가의 죽음을 선언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모방은 ‘표절’의 개념에서 ‘페러디’라는 개념으로 탈바꿈하여 현대예술의 주된 창조전략으로 대두되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더니스트들이 독창성, 천재성, 유일무이성을 사칭하는 대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의미가 구축되는 과정을 해체하며, 이미지와 상징이 차용되어질 때 원래의 의미가 변화되거나 상실되는 방법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sup>2)</sup>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페러디의 의미는 과거 사전적 정의에서 언급된 조롱조의 모방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소설에서부터 음악, 영화,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창작 유형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에 있다. 패션분야에서도 유티와 변형을 가미한 클래식을 제안하거나 이성적인 고전주의를 불균형적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질적 요소를 부가하여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시도하는 최근의 트렌드<sup>3)</sup>로 인해 다양한 컬렉션에서 페러디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 남성들의 외모와 스타일이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의류, 액세서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4)</sup> 구찌(Gucci), 이브 생 로

랑(Yves Saint Laurent),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 다수의 고급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그룹 피알피(PRPP)의 대표 프랑수아 앙리 피노(Francois-Henri Pinault)는 여성의류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오늘날, 앞으로 패션 마켓(fashion market)의 미래는 남성복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처럼 남성이 패션 마켓의 주요 타겟(target)으로 대두되면서 패션 마켓 카테고리(category) 내의 남성복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2007년 백화점 매출 중 남성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그쳤으나 2011년 처음으로 30%선을 돌파 하였다. 남성 그루밍(grooming)과 뷰티에 관한 관심 증대와 함께 보다 차별화된 패션에 대한 남성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리테일러들의 남성매장 특화 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sup>5)</sup>

이처럼 사회의 변화와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성패션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러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여성패션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페러디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대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페러디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페러디의 특성들이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어 왔는가를 표현방법 및 조형적 가치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셋째, 이를 통해 남성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페러디의 창조적 가능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톰 브라운(Thom Browne)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택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패션 경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2000년 이후의 남성패션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의 경우 1차적으로 2000년 S/S 컬렉션부터 2013년 S/S 컬렉션까지 총 27회의 컬렉션 중 과 반수 이상인 14회 이상 컬렉션을 선보인 46개의 브랜드를 선별하였다. 2차적으로 이 중 페러디 관련 선행연구<sup>6)</sup>에서 언급된 19개의 브

랜드를 선별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브랜드 중 다수의 수상 경력(총 8회)을 갖고 있으며 패션전문지나 웹사이트에서도 특별기사로써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브랜드인 톰 브라운을 선택하였다. 디자이너 톰 브라운은 2004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새롭다’, ‘도전적이다’, ‘괴짜 같다’ 등 수많은 수식어를 만들어내며 전통적인 남성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sup>7)</sup> CFDA의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2006)’, GQ 매거진의 ‘올해의 디자이너(2007, 2008)’, WGSN 글로벌 패션 어워드에서 ‘남성복 부문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2010)’로 선정된 바 있다. Fashionbiz(패션비즈)에서도 ‘2012 라이징 패션 패션 디자이너(rising fashion designer)’로 톰 브라운을 선정하고 그의 디자인 세계와 남성패션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루었다. 20세기를 걸쳐 남성복에 있어 눈에 띄는 착장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재즈 수트’(Jazz suit), ‘주트 수트(Zoot suit)’, ‘모즈(Mods)’, ‘테디 룩(Teddy)’ 등 스트리트 패션, 즉 하위문화 패션이었다. 하지만 톰 브라운은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발렌티노(Valentino), 에르메네제르도 제냐(Ermenegildo Zegna), 브리오니(Brioni) 등 유럽의 디자이너 라인들이 남성복 스타일을 주도하는 고급 남성복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던 클래식 수트의 ‘룰(rule)’과 ‘프로포션(proportion)’을 바꿔버렸다.<sup>8)</sup> 톰 브라운이 남성복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가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데 있다. 그러므로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서 주요 창조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를 고찰하는 것은 현대 남성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패러디의 창조적 가능성과 예술적 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문헌연구(서적, 논문, 미술 비평지 등)를 통해 서양 문학과 미술 일반에서 패러디와 관련된 개념, 사상 및 이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았으며 문학, 패션, 광고, 건축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패러디 유형들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세 가지 패러디 유형(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을 도출해낸 뒤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써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구체적인 패러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www.thombrowne.com](http://www.thombrowne.com), [www.style.com](http://www.style.com)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톰 브라운 컬렉션(2004 S/S-2013 S/S)의 사진자료 총 603장을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착장을 보여주는 전면 사진만을 선택하였고 후면사진, 디테일컷(detail cut)은 제외하였다. 이들 중 패러디 특성을 보이는 사진들을 객관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패션디자이너를 세부전공으로 하는 의류학 분야의 박사 4인, 석사 3인을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시, 작품들을 20개씩 묶어 A3 용지(31장)에 컬러 출력하여 자극물을 구성하였는데 사진들은 시즌이나 표현특징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열하였다. 또한 패러디 유형에 대한 포커스 그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패러디 유형 및 각 유형에 따른 패러디 소재에 대한 참고 설명과 설문응답 방법에 관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때, 패러디 유형은 A:모방적 패러디, B:비판적 패러디, C:혼성모방적 패러디로 표기하였으며 패러디 소재는 1:역사적 이미지, 2:대중적 이미지, 3:성(性), 4:계층, 5:복종, 6:일상적 사물, 7:자연물로 표기하였고 응답 방법은 A1, A2, B3, B4, B5, C6, C7로 제시하였다. 설문결과, 과반수 이상 즉 4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216점(전체 표본의 35.8%)을 선별해낼 수 있었다. 셋째,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선별된 사진들을 대상으로 패러디의 특성 및 표현방법을 도출하고 그 조형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는 각 유형별 패러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판단된 즉, 포커스 그룹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진 34점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 II. 패러디의 이해

### 1. 패러디의 개념

패러디(parody)는 풍자나 희화화(戲畫化)를 위해 작가 또는 작품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모방하는 문학 혹은 예술 활동을 말한다.<sup>9)</sup>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는 패러디를 모방의 의미로 언급하지만 패러디의 어원을 살펴보면 보다 심오한 창조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패러디의 어원으로 알려진 그리스어 parôdia는 para(대응하는, 반하는) + ôdia(노래)가 결합된 것으로, 옆의 노래(chant à côté)라는 뜻이다.<sup>10)</sup> 접두어 'para-'는 오디아(본체)와는 대립적인 또는 오디아에 맞붙여진 장식적 의미로, 오디아는 '부수적인, 외부적인, 추가적인, 옆의, 나머지' 등의 뜻을 가진다. 즉 패러디의 어원은 대조와 상반, 혹은 일치나 친숙이라는 이중적 개념을 내포하지만, 본질적 개념은 본체에 덧붙여진, 즉 단순한 모방이 아닌 변형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것이다.<sup>11)</sup> 어떠한 경계, 즉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공간적으로는 이곳과 저곳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파괴되는 패러디의 '탈' 속성은, 패러디가 본체인 원작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원작에 제시된 요소와 그와 대비되거나 덧붙여진 요소를 동시에 전달하여 원작과 패러디 작품 간의 새로운 대화적 문맥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패러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작을 모방하여 원작을 감추는 것이 아닌, 원작과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모방인용의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상호텍스트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패러디는 하나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 대조시킴으로써 조롱하거나 우습게 만들려는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텍스트와 텍스트간의 전도(顛倒, inversion)에 있어서 린다 허치언이 정의한 '차이를 둔 반복'이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sup>13)</sup> 그에 따르면 패러디는 '이전의 예술작품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전도(inversion)시키고, 초맥락화(trans-contextualizing)하는 통합된 구조적 모방'을 말한다. 이것은 어느 한 텍스트가 필연적으로 다른 텍스트와 구조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패러디는 발신자와 수신자, 즉 기호부여자와 해독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때 패러디 텍스트의 의미 체계는 선행 텍스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된 차이'를 생산해 내는 것이며 이처럼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패러디의 답론은 타자를 포함한 세계에 대한 열린 답론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기

간이 경과할수록 패러디의 개념과 기능이 보다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패러디의 정의를 근간으로 패러디의 범주를 전체 장르에 대한 패러디, 한 시대나 조류의 스타일에 대한 패러디, 특정 예술가에 대한 패러디, 예술가 전체 작품의 특징적 양식상에 관한 패러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4)</sup> 정끝별은 패러디는 원텍스트와 패러디스트, 패러디 텍스트와 독자에 의해 완성되는 두 개의 의사소통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패러디스트는 원텍스트의 해독자이자 동시에 패러디 텍스트의 새로운 기호자가 됨을 일깨우며, 비평과 창조의 기능은 이 과정에서 발휘된다고 하였다.<sup>15)</sup> 패러디를 "자기 비평의 시각을 갖고 과거나 선행 양식에 대한 모방의 기법으로서 패러디스트의 창조능력으로 풍자와 아이러니 패러독스의 표현방법을 통하여 낯설게 되며, 충격과 의외성으로 새로움을 표현하는 창작기법"이라고 한 고현진·김민자<sup>16)</sup>의 정의도 위 연구자들이 제시한 패러디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과 함께 패러디는 주목받는 창작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차용어법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20세기 현대예술을 이끌어온 중요한 창작방법의 하나이다. 패러디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은, 패러디가 차용어법의 다른 형식들-패스티시, 인용, 모조작 등-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전통의 비판적 해석-에 접근해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개념을 '전통의 비판에 근거한 차용'이라고 정의할 때 이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이전의 미술사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모더니스트들은 예술의 척도를 그 독창성, 유일성, 창조성에 두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모더니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더니즘의 근본개념, 즉 오리지널리티를 부정하고 해체하고자 했으며, 그 방법으로 패러디를 사용해왔다.<sup>17)</sup>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루는 주체적 힘으로서 패러디는 대단히 위력적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으로 여겨진다.

## 2. 패러디의 유형

패러디의 유형은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 마가렛 로즈(Margaret A. Rose),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원텍스트에 관한 패러디스트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마이클 뉴먼(원텍스트의 계승, 원텍스트의 문제성제시, 원텍스트의 존재자채비판), 마가렛 로즈(원텍스트의 호감과 비판, 원텍스트의 조롱과 경멸), 린다 허치언(원텍스트의 존경, 원텍스트의 경멸, 원텍스트에 대한 중립적 견해)-하얏트<sup>18)</sup> 을 확인하였다. 시 창작에 있어 모방과 차용의 뜻으로 해석되는 패러디의 의미와 우리 시의 적용을 분석한 정끝별<sup>19)</sup> 역시 '원작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태도'를 기준으로 패러디 유형을 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술양식의 한 장르인 패션분야에서도 패러디 기법은 많이 언급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고현진<sup>20)</sup>은 문학과 타 예술에서 언급되어 온 패러디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를 선행 양식의 외적 형식에 대한 패러디, 선행 양식의 내적 의미에 대한 패러디, 일상적 사물의 외적, 내적 위치 전환의 패러디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진경옥<sup>21)</sup>은 패러디 예술과 모방, 창조성의 관계를 고찰하고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패러디 유형을 모

방적 패러디, 비평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 아이러니한 패러디로 구분하여 그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패러디가 모방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창조성의 구조적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신명진<sup>22)</sup>은 패러디의 유형을 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현대 남성패션에서 포스트모던 패러디가 핵심기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보람<sup>23)</sup>은 패러디의 유형을 외적 형식 변화, 내적 의미 변화, 외적·내적 위치 전환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한 벨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건축, 광고 등의 분야에서도 패러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우세희와 김혜경<sup>24)</sup>은 건축에 나타난 패러디 유형을 선행 양식을 이용한 패러디, 혼성적 모방의 패러디, 절충양식의 패러디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이를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 유형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의도를 해석하였으며 김 미<sup>25)</sup>는 패러디의 유형을 풍자적 패러디와 반어적 패러디로 구분하여 고찰한 뒤 국내·외의 패러디 광고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엽<sup>26)</sup>은 패러디를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으로 이해하였고 그 유형을 비판·조롱의 패러디, 오마주(hommage)적 패러디, 중립적인 패러디로 구분하였으며 시각예술교육에서 패러디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분야별 패러디 유형

분야별 연구자 패러디 유형	문학	패션					건축	광고	시각예술
	정끝별	고현진	신명진	진경옥	김보람	구은경 외	우세희 & 김혜경	김 미	한상엽
모방적 패러디	모방적 패러디	선행양식의 외적형식에 대한 패러디	모방적 패러디	모방적 패러디	외적 형식 변화	원텍스트의 반복을 통한 고정관념의 전환	선행양식을 이용한 패러디 (전통양식을 계승)	-	오마주적 패러디 (존경의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선행양식의 내적의미에 대한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비평적 패러디 아이러니한 패러디	내적 의미 변화	원텍스트와의 불일치를 통한 풍자 및 회화	절충양식의 패러디 (시대의 반영, 현실비판)	풍자적 패러디 반어적 패러디	비판·조롱의 패러디
혼성 모방적 패러디	혼성 모방적 패러디	일상적 사물의 외적·내적 위치 전환의 패러디	혼성 모방적 패러디	혼성 모방의 패러디	외적·내적 위치 전환	-	혼성적 모방의 패러디	-	중립적인 패러디

미술교육과정 속에 인유와 모방, 패러디의 관계의 중요성을 밝혀 피교육자의 창조적 경험을 극대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예술과 문학의 입장에서 패러디를 해석하여 패션·건축·광고 등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로 '차이를 가진 반복 또는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이라는 광의의 패러디 개념을 주장한 린다 허치언(Hutcheon, Linda)의 견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패러디의 유형은 패션, 건축, 광고 등의 시각예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경우가 많았으며 유형분류의 내용과 용어는 대동소이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린다 허치언이 제시한 광의의 패러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되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패러디의 유형들 중 다수의 연구자가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유형분류가 가장 포괄적이고 용어 측면에서도 이해가 쉬운 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를 사용하여 톱 브라운의 컬렉션에 표현된 패러디의 유형 및 특성을 알아보려 한다(표 1).

### 1) 모방적 패러디

모방적 패러디는 원작의 권위와 규범을 계승하는 유형으로서 원작을 계승하여 원작과 비슷한 모습이 되고자 하는 패러디 동기를 반영한다.<sup>27)</sup> 즉 원 텍스트의 사상을 승인하고 감각적인 친근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보완하며 확장한다. 원 텍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내적 긴장을 더욱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단지 표면적인 면으로 빌려옴으로서 에너지가 결여되는 표절과는 구분이 되는 모방이다.<sup>28)</sup> 모방적 패러디에는 조롱이나 풍자의 성격보다는 원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를 대비시키는 데서 오는 지적인 즐거움이 더 강하며 이러한 패러디는 주로 외적 형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현진, 김보람 등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선행양식의 외적형식에 대한 패러디' 유형을 대치하는 용어로 모방적 패러디를 선택하였다.

모방적 패러디는 주로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ri Simoni)의 천지창조(天地創造,

Genesis)나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Mona Lisa) 등 역사적으로 대중에게 유명하고 익숙한 작품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대표작인 '샘(Fountain)'을 차용한 셰리 레빈(Sherrie Levine)의 3차원 오브제도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어 진다(그림 1). 패션 분야에서는 과거의 스타일이나 예술양식을 모방하거나 지역성을 나타내는 스타일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원 텍스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강조하여 친밀감과 호의를 느끼게 한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그의 컬렉션에서 인도의 전통 머리장식인 터번(turban)을 차용한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4).

### 2) 비판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는 원 텍스트를 인정하지만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하는 것을 말한다. 원 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거리를 필수로 하는 패러디로서 현재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패러디가 바로 이러한 조롱적 풍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비판적 패러디이다. 비판적 패러디는 원작의 권위와 규범을 문제시하는 유형으로 여기서 문제시한다는 것은 원작의 근거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뜻하며 원작에 대한 공격성과 풍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작가의 자의식이 강하게 노출되면서 패러디 텍스트는 원 텍스트에 대해 저항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sup>29)</sup>

패러디스트는 원작의 기법을 계승하기보다는 원작을 차용함에 있어 자신의 비판적 시선을 투영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주로 왜곡과 변형의 기법, 그래피티, 초현실적 표현을 통해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의외성을 추구함으로써 낯설과 새로움을 감상자(독자)에게 전달한다. 미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비판적인 패러디의 사례로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복제화에 연필로 수염을 그려 넣고 'L.H.O.O.Q.'라는 성적인 암시가 들어간 글

자를 달아 기존의 예술작품이 갖는 신화적 권위에 도전하였다(그림 2). 패션에서 보여 지는 비판적 패러디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성과 계층 등 기존의 관념들을 패러디를 통해 전복시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폼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은 남성 재킷과 스커트를 코디네이션 함으로써 기존의 남성복식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켜 낯설을 유도하고 있다(그림 5).

### 3) 혼성모방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원작의 권위와 규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유형이다. 작품이 지니는 창조성이나 원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원작을 대량 복제하고 과감히 발췌 혼합함으로써 원작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규범을 대중화시킨다. 원작에 대한 공격성과 풍자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모방적 패러디와 유사하지만 원작과의 유사성이 보다 직접적이고 패러디의 목적이 전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패러디와 다르다. 사회가 가지는 복잡성, 임의성, 우연성, 무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복제적 특성과 유희적, 실험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된다.<sup>30)</sup>

본 연구에서는 '혼성모방적 패러디'를 일부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일상적 사물의 외적·내적 위치 전환의 패러디'와 '중립적인 패러디'를 대치할 수 있는 용어로서 선택하였다. '혼성모방'이라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는 '패스티시(pastiche)'는 패러디와 서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면서도 근본적인 상이점을 갖고 있다. <문학용어사전>은 패러디를 '어떤 것의 흉내를 통해 그것이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으로 그리고 패스티시를 '음악의 메들리나 미술의 모자이크처럼 여러 텍스트의 편린들을 혼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패러디와 패스티시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sup>31)</sup> 패러디가 선행 텍스트를 모방하면서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에 반하여 패스티시는 이러한 창조적 변형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엄밀히 구별되는데 이에 관하여 린다 허치언은 패스티시가 차이보다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패러디와 다르다고 하였다.<sup>32)</sup> 미국의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패스티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의 패스티시에는 새로운 상상력을 찾지 못하고 기껏 기존의 작품들에서 빌려온 것들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제임슨의 비판적 시각이 깃들여 있다.<sup>33)</sup> 그는 패스티시를 '공허한 패러디'라 일컬으며 일반화된 패러디의 위상과는 다른 범주에서 취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대적 입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승훈<sup>34)</sup>의 경우 패스티시가 지닌 미학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박상배<sup>35)</sup>는 오늘날의 문학 현상에서는 패러디와 패스티시가 서로 혼용되고 있으며, 패스티시에 대한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패스티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패러디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패스티시의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며 패션에서도 패스티시를 포스트모던 패션의 주된 창작기법 중 하나로 보고 있기에<sup>36)</sup> 본 연구에서도 이를 패러디 영역으로 확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나 특정한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 작품 또는 창작 방법이다. 월남전의 이미지로 유명한 별거벗은 소녀가 미국의 상징인 미키마우스(Mickey Mouse)와 맥도날드(McDonald) 모델인 로날드 맥도날드(Ronald McDonald)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뱅크시(Banksy)의 작품이 그 예이다(그림 3). 패션에 등장하는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일상적 사물 또는 동·식물 등 이질적인 이미지를 조합, 중첩, 위치 전환시킴으로써 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담 키멜(Adam Kimmel)은 카지노(Casino)를 주제로 한 컬렉션에서 포커테이블(Poker Table)의 이미지와 유령의 모습을 차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희화화시켰다(그림 6).

패러디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사례는 <표 2>와 같다. 상술된 패러디 유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성

〈표 2〉 패러디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사례

패러디 유형 특성	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
패러디의 범주	전체 장르, 한 시대나 조류의 스타일, 특정 예술가, 예술가 전체 작품의 특징적 양식, 다양한 오브제 등		
개념과 형식	원 텍스트의 권위와 규범을 계승하는 유형으로 주로 외적 형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이루어짐	원 텍스트를 인정하지만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하는 유형으로 원작을 차용함에 있어 자신의 비판적 시선을 투영함	원 텍스트가 지니는 창조성이나 원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원작을 대량 복제하고 과감히 발췌 혼합함
효과	원 텍스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강조하여 친밀감과 호의를 느끼게 함	의외성을 추구함으로써 낯설과 새로움을 감상자(독자)에게 전달함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규범을 대중화시킴
사례 (미술)	 <p>〈그림 1〉 Serrie Levine, 'Fountain', 1947 - <a href="http://www.christies.com">http://www.christies.com</a></p>	 <p>〈그림 2〉 Marcel Duchamp, 'L.H.O.O.Q.', 1919 - <a href="http://en.wikipedia.org/wiki/L.H.O.O.Q.">http://en.wikipedia.org/wiki/L.H.O.O.Q.</a></p>	 <p>〈그림 3〉 Banksy, 베트남 소녀, Ronald McDonald와 Mickey Mouse - <a href="http://www.whatsonyourwall.com/banksy-graffiti-25">http://www.whatsonyourwall.com/banksy-graffiti-25</a></p>
사례 (패션)	 <p>〈그림 4〉 Jean Paul Gaultier, Spring 2013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5〉 Comme des Garçons, Spring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6〉 Adam Kimmel, Fall 2010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패션에 나타난 각 유형 별 패러디의 사례와 함께 패션과 관련성이 깊은 미술 분야의 패러디 사례를 제시하였다.

### Ⅲ.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유형 및 특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류된 세 가지 패러디 유



형-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의 개념과 형식의 틀에 준하여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모방적 패러디

모방적 패러디란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 텍스트를 승인하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 의미를 보완·확장하는 것으로 주로 형식의 차용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하는 기법을 뜻한다. 패션에서는 주로 감상자에게 익숙한 이미지들을 패러디의 소재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미지란 특정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像)으로서 분위기, 감각, 연상 등의 의미를 함축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며<sup>37)</sup> 역사와 대중문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들이 패러디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1) 역사적 이미지

과거의 복식 양식에 근원을 둔 현대 패션은 시대적 감성에 맞게 재해석되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서도 역시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톰 브라운은 기발한 컬렉션 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답게 패션계에서 그동안 많이 차용된 역사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복식이미지 뿐 아니라 특정 사건, 장소 등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방식으로 모방적 패러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패러디 기법으로는 '선행양식의 형태를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변형, 왜곡, 과장 또는 강조' 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였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스타일을 패러디한 컬렉션을 살펴보면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of-mutton sleeve)와 모자 등은 유사하게 재현하였지만 하얀 니트 모자로 가발의 이미지를 대체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그림 7). 18세기 추수감사절의 만찬을 주제로 한 2011년 컬렉션에서는 모델들이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그림

8) 2012년에는 파리(Paris)의 전설적인 아르누보(Art Nouveau) 레스토랑인 맥심(Maxim's)에서 쇼를 열어 술을 마시는 모델들을 무대 위에 세우며 과거의 이미지를 패러디하기도 하였다(그림 9). 톰 브라운은 1920년대 사립학교 교실 이미지를 주제로 진행된 쇼에서 복제된 것처럼 보이는 수 십명의 모델들에게 같은 옷을 입히고 같은 모양의 서류가방과 타자기가 올려진 책상 앞에 앉거나 동시에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등 같은 행동을 취하게 하였다. 이처럼 반복된 사립학교 학생의 이미지는 패러디의 효과를 한층 강조하였다(그림 10). 이 밖에도 톰 브라운은 갓 귀환한 우주비행사들을 미국과 프랑스의 대표단이 환영하는 듯 한 컨셉으로 쇼를 시작한 뒤 모델들이 비행복을 벗고 미래적인 헤어, 메이크업과 함께 다양한 수트를 보여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패러디를 반전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1).

### 2) 대중적 이미지

톰 브라운은 감상자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패러디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쇼의 주제를 명확히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상의 이미지나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자리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패러디한 컬렉션들이 그 예이다. 톰 브라운의 2013년 봄 컬렉션이 열린 메종 드 라 시미(Maison de la Chimie)의 정원에는 은색 브로그(brogue) 여러 쥘레가 모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색 튜브로 몸을 가린 채 등장한 모델들이 각자의 자리에 선 후 튜브를 땅에 떨어뜨리자 은색 페인트에 빠졌다 나온 듯 반짝거리는 모델들이 다채로운 색상의 플레이드(plaid) 수트와 셔츠, 반바지들을 입은 채 나타났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이미지를 패러디한 모델들의 모습은 톰 브라운이 선보인 화사한 컬러의 의상들과 대조를 이루며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그림 12). 테니스코트에서 펼쳐진 2009년 봄 컬렉션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레드컬러 배색의 화이트 폴로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니 삭스(knee socks)를 신은 모델들은 전형적인 테니스 선수의 이

미지를 보여주며 쇼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등장한  
기발한 의상들과 대조를 이루어 쇼의 후반부로 갈수

록 보다 극적인 효과를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13).

〈표 3〉 모방적 패러디의 소재 및 사례

소재	모방적 패러디의 사례				
역사적 이미지					
	<p>〈그림 7〉 fall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8〉 fall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9〉 spring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10〉 fall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11〉 spring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대중적 이미지					
	<p>〈그림 12〉 spring 2013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13〉 spring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14〉 The Longest Yard, 1974 - <a href="http://playeraffinity.com">http://playeraffinity.com</a></p>	<p>〈그림 15〉 The Iron Lady, 2011, - <a href="http://www.styleguru.com">http://www.styleguru.com</a></p>	<p>〈그림 16〉 fall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17〉 fall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18〉 The Road Warrior, 1981 - <a href="http://movie.daum.net">http://movie.daum.net</a></p>	<p>〈그림 19〉 fall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0〉 Frankenstein, 1931 - <a href="http://en.wikipedia.org">http://en.wikipedia.org</a></p>	<p>〈그림 21〉 fall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문화·예술의 여러 장르 중 영화는 특히 대중과의 교감을 중시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여 지는 친숙한 이미지들은 패션 분야에서 종종 패러디의 소재가 되어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보다 강력히 표현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톰 브라운의 2012년 가을 컬렉션에서는 롱기스트 야드(The Longest Yard), 아이언 레이디(The Iron Lady), 로드 워리어(The Road Warrior),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등 다양한 영화의 이미지들이 패러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미식축구 선수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근육이 극도로 과장된 모델에게 보호헬멧을 착용시키고 포털한 슈트와 서류가방을 코디네이션 함으로써 아이러니한 재창조의 패러디를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성이 극도로 강조된 모델의 이미지는 '철의 여인' 대처의 시그니처(signature) 재킷, 스커트와 함께 제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핑크, 그린과 같은 여성스러운 컬러들이 더해져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그림 14-17). 로드 워리어의 이미지는 킬트 느낌을 주는 여성스러운 핑크 스커트와 함께 제시되었고 프랑켄슈타인의 기괴한 창조물의 이미지는 산뜻한 컬러의 노르딕 패턴(Nordic pattern)의 의상을 만나 대조를 이루면서 패러디로 인한 긴장감을 더해준다(그림 18-21).

이처럼 톰 브라운은 일반인들에게 각인된 정형화된 이미지를 패러디의 소재로 취하고 그에 걸 맞는 모습을 재현하여 보여줌으로써 패러디의 일반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조롱이나 풍자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현대의 패러디를 보여주고 있다.

## 2. 비판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는 패러디스트(parodist)가 원 텍스트가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으로 원 텍스트에 대한 공격성과 풍자성이 표출된다. 패션에서는 디자이너가 패러디화의 과정에서 원 텍스트를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킴으로써, 내용의 변화를 통해 낯설게 하기 효과를 유발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 표현되는 비판적 패러디는 주로 성과 계층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와해시키는 특성을 지니는데 원 텍스트의 형태나 관습화된 규범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 1) 성(性)

톰 브라운은 성에 관한 비판적 패러디 양상을 컬렉션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데 그는 남성의 성격 고정 관념, 아이템, T.P.O.(time, place, occasion)에 적합한 착용방법을 패러디 과정에서 해체하고 이에 여성적 이미지를 융합하여 남성의 이미지를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톰 브라운은 이를 통해 기존 사회 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여성성을 대표하는 아이템인 미니스커트, 웨딩드레스, 툴, 머릿수건 등이 남성성을 대표하는 아이템인 재킷과 함께 착용되거나 주로 여성복에 사용되는 장식적 소재인 비즈(beads)나 코르사주(corsage)가 남성의 슈트에 사용되어 졌을 때 느껴지는 그 부적절함이 충격효과를 야기 시킨다(그림 22-27). 톰 브라운은 턱시도 형식의 베스트를 입은 남성에게 여성성을 대표하는 꽃이 형상화된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시키거나 음모를 연상시키는 털을 팬츠위로 드러내는 과도한 노출을 통해 성성(sexuality)를 둘러싼 논쟁을 풍자하는 패러디를 보여주었다(그림 28, 29). 또한, 속옷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팬츠를 스펅글로 장식된 탑에 코디네이션시킴으로서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 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대 패션의 대표적 양상을 풍자하고 있다(그림 30).









### 2) 계층

오랜 시간동안 패션은 계층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비판적 패러디는 그동안 외면당했던 계층의 이미지들을 기호화하여 주류 남성을 풍자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노동 계층의 의복으로 여겨졌던 상하가 하나

〈표 4〉 비판적 패러디의 소재 및 사례

소재	비판적 패러디의 사례					
						
성(性)	<p>〈그림 22〉 spring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3〉 spring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4〉 spring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5〉 fall 2010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6〉 spring 2010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7〉 spring 2008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8〉 spring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29〉 fall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30〉 spring 2010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계층과 복종						
	<p>〈그림 31〉 fall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32〉 fall 2007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33〉 fall 2007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34〉 fall 2010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35〉 spring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p>〈그림 36〉 spring 2008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표 5〉 혼성모방적 패러디의 소재 및 사례

소재	혼성모방적 패러디의 사례				
일상적 사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37〉 fall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38〉 spring 2012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39〉 spring 2009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자연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40〉 fall 2008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41〉 fall 2008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42〉 fall 2010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43〉 spring 2011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44〉 spring 2013 - <a href="http://www.style.com">http://www.style.com</a></p> </div> </div>				

로 이어진 작업복을 셔츠, 타이, 재킷, 안경 등 과거 상류층을 대변하는 아이템과 함께 코디네이션하거나 강도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아이템인 얼굴을 덮는 모자를 비즈니스맨을 연상시키는 수트 및 서류가방과 함께 코디네이션함으로써 그동안 주류 계층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백인 남성의 상징적 이미지를 파괴하고 있다(그림 31, 32). 또한 긴 트레인이 달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의 이미지를 전통적인 남성복을 착용한 남성의 이미지로 대체한 톰 브라운의 컬

렉션은 오랜 시간동안 풍자의 대상이었던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있다(그림 33).

### 3) 복종

복종 별 분류란 의복 용도에 의한 분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T.P.O.(time, place, occasion)에 따라 착용하는 옷을 분류하는 것이다. 최근 컬렉션에서 자주 보여지고 있는 속옷의 겉옷처럼 복종간의 침범도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종교복은 성직자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며 그 종교적 의미를 강화해주는 성스러운 복식으로 인식 되어 왔으나 이러한 20세기의 복식의 성격도 패러디스트들에 의해 무너져버렸으며 톰 브라운 역시 성직자의 이미지를 패러디함으로써 이를 세속화시켰다 <그림 34>. 2009년 봄 컬렉션은 테니스복과 전통적인 남성복이라는 이질적인 두 복종의 상호 침범을 잘 나타내주며 수경 및 수영모를 구두와 함께 착용한 수영선수의 이미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5, 36>.

### 3. 혼성모방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원 텍스트를 취하는 방법에 있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양상을 보이며 원 텍스트의 과감한 발췌와 혼합을 통해 타 패러디 범주보다 강하게 현실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패러디의 범위와 영역은 무한히 넓어져,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성품으로서의 온갖 대상들을 패러디함으로써 반 제현주의라는 패러디의 기본 개념이 흔들리고 '현실표절'이란 단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sup>38)</sup> 이처럼 비판적 거리를 포함하지 않는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서 일상적 사물, 자연물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주로 표현되며 이는 낯선 오브제들이 패션에 접목될 때 파생되는 모순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가치를 형성한다.

#### 1) 일상적 사물

톰 브라운은 컬렉션에 일상적 사물을 종종 사용하는데 18세기 궁정시대 복장을 한 남성이 추수감사절 식사를 위해 서빙하는 모습을 패러디하며 칠면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37>. 또한, 술로 장식된 전등갓을 모자로 사용하거나 테니스 라켓의 이미지를 수트에 접목시킴으로써 일상적 사물들이 새롭게 지각되어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주도록 하였다 <그림 38, 39>.

#### 2) 자연물

톰 브라운은 새의 깃털로 장식되거나 새의 날개 모양이 형상화된 수트, 동물의 꼬리처럼 보이는 털

이 주렁주렁 달린 머플러와 바지, 상어, 돌고래와 같은 의외의 이미지들을 자수로 표현한 수트 등을 통해

남성복에 있어 새로운 조형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40-44>.

## IV.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조형적 가치

패러디는 일종의 자기비평의 형식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 기법으로서 오늘날의 예술이 자의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현대 예술에서의 중요한 창조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조형적 가치인 상호텍스트성, 유희성, 풍자성을 분석함으로써 패러디 패션을 새로운 미의 범주로 정당화하고, 남성 패션 디자인의 창조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

### 1. 상호텍스트성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표현된 이분법에 대항한 해체적 디자인 특성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텍스트는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즉,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sup>39)</sup> 따라서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인다.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성은 원 텍스트의 차이를 둔 반복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패션스타일과 아이템을 텍스트로 삼아 다른 텍스트와 상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났다. 톰 브라운은 성의 복합적 표현기법, 상반된 복종의 차이적 보충관계의 기법, 상반된 이미지의 상호 언급, 이질적 소재의 병행 인용, 속옷의 겉옷화를 서로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모두 집대성하여 상호텍

스트성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 2. 유희성

유희(遊戱)란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으로서 흔히 '놀이' 또는 '오락'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미학적 의미에서는 'play'의 개념으로 본다.<sup>40)</sup> 현대는 다양화·개성화의 시대로, 대중은 자신만의 독특함으

로 타인과의 차별성을 표현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톼 브라운의 컬렉션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된 유희적 표현 특징으로는 왜곡, 축소, 과장, 유아적 표현, 이질적 요소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툼 브라운은 기존 남성 패션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소재들을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써 진지함을 파괴하고 의외성을 나타내며, 충격과 놀람 등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특히 톼 브라운의 컬렉션에 자주 등장하는 유아적 착장과 장식, 동화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소재, 화려한 색상배합은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현

<표 6> 톼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조형성

조형성	개념	표현방법	사례
상호텍스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텍스트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감</li> <li>-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 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의 복합적 표현기법</li> <li>-상반된 복종의 차이적 보충관계의 기법</li> <li>-상반된 이미지의 상호 언급</li> <li>-이질적 소재의 병행 인용</li> <li>-속옷의 겉옷화</li> </ul>	
유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인 규범을 벗어난 부조화와 불일치, 모순적 표현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킴</li> <li>-사회의 모순, 불안한 상황, 획기적인 사건 등에 대한 조롱, 익살을 통해 유희성을 나타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곡, 축소, 과장</li> <li>-유아적 표현</li> <li>-이질적 요소의 도입</li> </ul>	
풍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자의 목표는 주로 사회적 도덕적이며 기본적으로 조롱의 의도를 갖고 있음</li> <li>-현상과 이상, 외관과 실재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위선을 폭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외계층의 이미지를 차용</li> <li>-다양한 자연물을 차용</li> <li>-대중에게 익숙한 스타, 캐릭터의 이미지나 스타일의 모방</li> </ul>	

실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주고 또한 나이나 성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의 감정을 갖게 하여 유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 3. 풍자성

멜빌 클락(A.Mellville Clark)은 풍자가 경박한 것과 진중한 것, 사소한 것과 교훈적인 것, 유치한 것에서부터 우아한 것 사이를 왕복하며 해학, 패러디 등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1)</sup> 패러디와 풍자의 차이는 인간행위에 대한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있는데 패러디는 그 목표가 사회적, 도덕적이지 않는 반면 풍자는 사회적, 도덕적이다. 풍자는 조롱의 의도를 항상 갖지만 패러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패러디와 풍자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되는 명백한 이유는 이 두 개의 장르가 함께 사용된다는 데에 있다.<sup>42)</sup> 디자인에 있어서 패러디의 표현방식은 풍자적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패션에서의 풍자는 미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삼고 인간가치의 수호에 바탕을 둔다.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서 풍자는 현상과 이상, 외관과 실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위선을 폭로하는데 이용되었으며 주로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소외계층의 인간가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형적인 남성상을 파괴하거나 치유되어야 할 인간성에 대한 풍자를 위해 다양한 자연물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영화에서 나타난 기괴한 이미지들을 헤어나 메이크업에 표현하거나 모델을 조각상의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충격적인 미의 전달과 함께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고 동시에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휴머니즘을 엿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 논의되어온 패러디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패러디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에 준하여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러디의 특성 및 조형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표현된 모방적 패러디의 경우를 살펴보면 패러디의 소재는 역사적 이미지, 대중적 이미지 등이었고 디자이너가 패러디화를 위해 사용한 기법은 원 텍스트에 밀접한 모방, 변형, 과장, 왜곡, 첨가, 삭제, 축소, 단순화, 생략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의외성, 장난, 위트, 조롱, 풍자, 아이러니 등의 효과가 유도되었다. 비판적 패러디는 그 특성에 대한 관념이 뚜렷이 고정된 선행하는 양식을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킴으로써 의외의 충격효과, 아이러니 등의 효과를 주는 것이었다. 이때 사용된 소재는 관념화된 성, 계층, 복식 양식이었으며 사용된 기법은 주로 대체, 해체의 기법이었다.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일상적 사물이나 자연물이 다른 맥락으로 위치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모순을 나타내는 패러디로서 이에 사용된 기법은 병치 혹은 변형·이동이었다. 이러한 패러디의 효과는 낯설, 우스꽝스러움, 조롱, 풍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톰 브라운은 과거의 부분적 요소를 현대에 맞도록 비역사적이고 임의적으로 인용, 은유, 혼합, 차용함으로써 미적 호소력을 가지는 새로운 룩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다양한 하위문화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식이나 허무주의적 요소들을 차용함과 더불어 성역할에 따른 의복의 패러다임을 해체시켰다. 남성복과 여성복의 요소를 차용, 모방하여 디자인 및 디테일 요소로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패러디와 함께 이질적 문화 기호 요소들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통한 패러디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외적특성과 더불어 원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간의 불일치와 임의성을 통해 우연성과 유머를 창조하며 자유와 불연속성이라는 내적특성을 갖는다.

이 같은 고찰을 통해 톰 브라운의 패러디를 응용한 패션디자인은 지극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과장, 구성의 파괴, 불연속의 강조, 불거리로의 전환, 낯설의 미학, 반이성과 모순의 경향을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표현된 패러디의 조형적 가치로 상호텍스트성, 유희성, 풍자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 패러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미래의 패션을 바라보는 열린 사고를 제공하고 패션 디자인의 관습적 사고 범위를 벗어난 창조적 발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Hutcheon, Linda (1992),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울: 문예출판사, p. 7.
- 2) 김영순 외 (2005), *패러디와 문화*,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p. 114.
- 3) "2012 F/W influence - 'Whimsical Recreation'", 자료검색일 2012. 6. 2, <http://www.samsungdesign.net>
- 4) "남성 온라인 쇼핑물 런칭 봄", 자료검색일 2011. 6. 28, <http://www.samsungdesign.net>.
- 5) "The Year of the Man- 남성 매장의 진화", 자료검색일 2011. 11. 28, <http://www.samsungdesign.net>.
- 6) 신명진 (201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러디,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2012 라이징 패션 Designer '키 시크' 창조한 톰 브라운 뜨다"(2012. 1), *Fashionbiz*, p. 171.
- 8) *Ibid.*
- 9) "패러디(parody)", 자료검색일 2012. 3.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472>
- 10) 김영순 외, *op. cit.*, pp. 116-117.
- 11) 신익호 (2008), *현대문학과 패러디*, 서울: 제이앤씨, p. 18.
- 12) 김영순 외, *op. cit.*, p. 118.
- 13) 차봉준 (2011), *패러디, 관계와 소통의 미학*, 서울: 인더북스, pp. 30-31.
- 14) Hutcheon, Linda, *op. cit.*, p. 15, 23.
- 15) 정끝별 (1996), 한국현대시의 패러디 구조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8-29.
- 16) 고현진, 김민자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parody)에 관한 연구, *복식*, 25, p. 253.
- 17) 문영대 (2004),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3(3), p. 316.
- 18) 진경옥 (2001),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정끝별 (1997), *패러디시학*, 서울: 문학세계사, pp. 69-70.
- 20) 고현진 (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진경옥, *op. cit.*
- 22) 신명진 (201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러디,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김보람 (200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한 벨트 디자인 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우세희, 김혜경 (2005), 포스트모던에 나타난 패러디 건축과 패션이미지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5(2), pp. 1-15.
- 25) 김미 (1996), 패러디광고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한상엽 (2006), 시각예술에 있어서 창조적 경험과 패러디에 관한 연구, *造形教育*, 28.
- 27) 정끝별, *op. cit.*, pp. 69-70.
- 28) 진경옥, *op. cit.*, p. 25.
- 29) 정끝별, *op. cit.*, p. 69.
- 30) *Ibid.*, p. 70.
- 31) 김성곤 (2003), *퓨전시대의 새로운 문화 읽기*, 서울: 문학사상사, p. 271.
- 32) Hutcheon, Linda, *op. cit.*, p. 192.
- 33) 김성곤, *op. cit.*, p. 272.
- 34) 이승훈 (1991),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서울: 세계사, pp. 253-254.
- 35) 이승훈, 박상배, 김오준 좌담 (1996), *메타시,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 서울: 현대시사상, pp. 94-97.
- 36) 진경옥, 박민여 (2000), 포스트모던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5), p. 143.
- 37) 이경희, 이은령 (2011), *패션 디자인 플러스 발상*, 서울: 교문사, p. 200.
- 38) 정끝별, *op. cit.*, p. 377.
- 39) 조말희 (1996),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
- 40) 다케우찌 도시오 (1993), *미학·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 역, 서울: 미진사, p. 249.
- 41) Arther Pollard (1978), *풍자*, 송낙현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9-10.
- 42) *Ibid.*, p. 73.